

따로노는 광주천 교량 경관

사업 단계별 디자인 일관성 없고 대형 조형물 주변과 부조화

市, 195억 들여 개선 사업

광주천 교량 경관개선 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대규모 예산을 들여 추진되고 있으나 디자인 개념이 사업단계별로 상이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교량의 경우 지나치게 큰 조형물이 설치되고 있어 운전자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고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모두 195억원을 들여 1단계(2007년 10월~2008년 8월) 5곳, 2단계(2009년 4월~2010년 5월) 9곳, 3단계(2009년 10월~2010년 5월) 7곳 등으로 나눠 광주천에 설치된 21개 교량에 대한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광주천교량경관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광주의 D업체와 서울 디자인업체인 N업체 등 3개 업체가 1~3단계 공사 및 디자인을 모두 맡고 있다.

그러나 이미 완공된 1단계의 경우, 남광교 등 5개 교량이 지나치게 조형물을 위주로 단장되고, 원색 LED 조명을 과도하게 설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2·3단계에서는 조형물 설치 및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변경됐다. 결국 광주시는 2·3단계 광주천 교량경관개선사업의 개념을 전면 변경한 셈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2·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16개 교량 중 광주의 관문 격인 원지교와 광천2교에 수억원에 이르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모습을 드러낸 원지교 인근의 길이 14m·높이 12m의 철골구조물은 3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광주의 상징?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천 교량경관 2단계 사업에 따라 동구 학동 원지교 인근에 들어서는 길이 14m·높이 12m의 철골구조물. '비스'이라는 명칭의 이 조형물에는 3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특히 이 대형 조형물은 디자인 공모 절차도 없이 참여업체들이 내놓은 3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 예술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 박모(45)씨는 "갑자기 차도 한 가운데 대형 철골 구조물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로, 어떤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1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형물이나 조명 설치를 최소화"라며 "다만, 원지교와 광천2교는 광주의 관문인 남문로와 북문로

전남도 농업박물관 휴관

20일까지 리모델링 사업

영암에 있는 전남도 농업박물관이 오는 20일까지 휴관한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박물관 내부공사와 전면부 광장 조성, 주

에 위치하는 만큼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관을 전공한 한 교수는 "광주천의 교량은 그 길이가 50~100m에 불과하며, 따라서 교량을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도심과 녹지를 연계하는 수준에서 디자인을 고려해야 했다"며 "현재 광주천에 설치된 교량들은 대부분 상징성과 기능성, 심미성 등을 두루 갖추기 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차장 포장 공사 등에 따라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박물관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산호관광지 조성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은 2011년 12월까지 완료되며 53만3천490㎡에 이르는 영산호 관광지에도 토목·조경·전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장필수기자 bungy@

이주여성 인권활동가로

광주 등 6개 권역 10명씩 '실무역량강화 교육'

인권센터 8일 개강

이주 여성들이 인권 시민단체의 활동가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시민 또는 인권단체의 활동가로서 일할 수 있도록 이론을 가르치고, 현장 실습으로 실무 능력을 키우는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실무역량강화 교육'을 마련해 8일 개강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지부와 전북지부, 서울·경기지부, 부산지부, 대구지부, 충북지부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오는 5일까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이주여성들

권역별로 10명씩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여성은 4월 7일까지 매주 월·수요일에 4시간씩 이론 강의를 받는다. 강의는 이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이론을 비롯해 이주민 역사, 이주민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이주여성 복지 정보,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 미디어 역할과 활용, 이주여성의 체류자격과 법적 권리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 동사무소와 경찰서, 이주민 관련 기관, 지역 비정부기구(NGO) 등을 찾아가 실무를 익힌다. 지역사회 활동가로서 알아야 할 기관 방문을 통해 기관의 역할을 알고 초보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천연기념물 수달 광주천 서식 확인

양동 주민들 "2마리 목격"

광주천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 목격됐다.

지난달 28일 광주시 서구 양동 광주천 인근 주민들은 "최근 광주천에서 반질반질한 몸통에 긴 수염이 달린 길이 50cm 가량의 수달 2마리를 봤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는 "이들 수달들은 암수 짝으로 보였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 마리가 앞장서서 달아났고, 다른 한 마리를 뒤를 이어 짝싸게 사라졌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수달을 목격한 곳은

광주천 중류인 중앙대교에서 양동복개사가 부근으로 차량과 사람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다. 또 수중보가 설치돼 있어 수심이 50cm 이상 유지되고 있고 수달의 먹잇감인 붕어, 피라미, 잉어 등이 풍부한 곳이다.

지난 2007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한 광주천 수달서식 실태 조사 결과, 남구 방림동의 광주천 설월교 아래 바위에서 7개의 수달 배설물이 발견돼 광주지역 도심에서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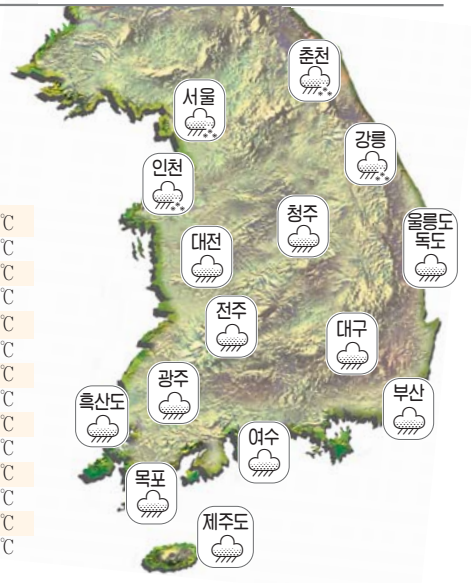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3분 해질 18시 27분 달뜨기 19시 19분 달짐 06시 57분

봄비로 여는 3월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우량은 10~50mm.



광주	흐리고 비	8/11°C
목포	흐리고 비	7/10°C
여수	흐리고 비	9/11°C
완도	흐리고 비	8/10°C
구례	흐리고 비	7/10°C
애남	흐리고 비	8/10°C
장흥	흐리고 비	8/10°C
고흥	흐리고 비	8/11°C
순천	흐리고 비	8/11°C
영광	흐리고 비	8/11°C
진도	흐리고 비	8/10°C
전주	흐리고 비	6/9°C
남원	흐리고 비	4/7°C
목포	흐리고 비	7/10°C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	↑	↑
서해 북부 앞바다	남동~남	1.5~2.5m	관심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2.0~3.0m	관심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2.0~3.0m	관심	↑	↑
〈오후〉 바다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목포	02:21	07:41
서해 북부 앞바다	북~북동	2.0~3.0m	목포	14:52	20:07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여수	09:40	03:17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여수	21:56	15:39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화)	3(수)	4(목)	5(금)	6(토)	7(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6/11	2/13	5/9	7/14	8/10	5/9

전교조 5월15일 사상 최대 규모 '교사 결의대회'

사실상 3차 시국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5일 스승의 날, 사상 최대 규모의 '교사 결의대회'를 추진한다.

이는 작년 두 차례 '교사 시국선언'에 이은 사실상의 3차 시국선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또다시 현직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및 고발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

둔 5월 '전교조 죽이기 중단 교사 선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 '2010년 사업계획안'과 '대의원 자료집' 등 비공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문건은 교사 결의대회 취지를 '현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실체를 폭로하고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교조 지키기', '사회적 연대', '국내외 단체 및 개인의 전교조 지키기 선언' 등을 세부 추진 내용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Gwangju City' (광주광역시) featuring various services and information. It includes sections for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광주광역시청' (Gwangju City Hall), and '광주광역시의회' (Gwangju City Council). The ad lists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departments.

Advertisement for '이태리 가구 50%' (Italian Furniture 50% off).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odern living room and a map of the store's location. The text promotes a 50% discount on Italian furniture from March 29th to April 1st. The store is located at 100% Made in Italy, 100% Made in Italy, 100% Made in Italy.

Advertisement for 'CASATO' shoes.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rown leather shoe. The text promotes '이태리 클래식 남자슈즈 캐시도' (Italian Classic Men's Shoes Casato) and '100% Made in Italy'. The store is located at 100% Made in Italy, 100% Made in Italy, 100% Made in Italy.

Advertisement for '칠만표 방수제' (Chilmanpyo Waterproofing).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tiger. The text promotes '칠만표 방수제는 벽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Chilmanpyo Waterproofing is responsible for walls and construction). It also mentions '수구비 100% 환원방수!!' (100% refund of water damage prevention!!). The store is located at 080-777-0358.